제327회국회
(임시회·폐회중)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8월20일(수)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
   가. 국제경기대회 남북체육교류·협력 관련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 1
   가. 국제경기대회 남북체육교류·협력 관련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5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가. 국제경기대회 남북체육교류·협력 관련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기대회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한 기관장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김영수 위원장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윤장현 위원장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국제경기대회를 준비 중인 조직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권경상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현안보고 주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권경상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대회 개막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보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대회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으며 이제 대회 준비를 무사히 마치고 45개국 2만3000여 명의 손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카타르 도하, 중국 광저우 등 앞선 대회들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우리 조직위원회는 당초 예산보다 631억 원을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가장 경제적이고 알뜰한 대회로 준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경연도, 일부 스포츠 강국에 편중된 잔치도 아닌 45억 아시아인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대회, 최첨단 기술력을 적용한 스마트 아시안게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듯이 대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마다 경찰과 소방CP와 연계한 현장안전통제실을 설치하고 경찰청, 소방방재청, 인천시 등 유관기

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드디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일까지 정확히 30일 남았습니다. 지난 9일 인천아시안게임을 환하게 밝힐 성화가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인도 뉴델리에서 채화되었고 지난 1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성화와 합화하여 전국 17개 시도 5700여㎞를 비추는 국내 성화봉송 여정에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미 아시아경기대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북한이 아시안게임 공식참가 의사를 밝힌 이후 인원 엔트리와 명단 엔트리도 순차적으로 제출해 옴으로써 인천아시안게임은 OCA 45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퍼펙트 아시안게임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조직위원회는 지난 7년간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개최 도시인 인천광역시의 도약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대회 개관 및 대회 준비현황,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체육교류·협력, 향후 주요일정 및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 개관과 대회 준비사항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체육교류·협력입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와 협력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북한선수단 참가에 대비하여 조직위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북한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주요 국제대회와 국제 스포츠계 고위 인사들을 활용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알사바 OCA 회장에게 북한 참가를 위한 OCA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였고 지난해 9월 OCA 협조를 받아 북한에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올해 4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도 북한 참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북한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 스포츠계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올해 1월 남녀축구팀의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6월 10일에는 북한선수단 인원 엔트리를 제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제1차 남북 실무접촉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8월 8일 북한은 다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종목별 조추첨 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으며 8월 13일 수영·양궁·복싱 등 14개 종목 150명 규모의 명단 엔트리를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껏 우리 조직위원회는 북한선수단의 참가를 전제로 대회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참가 준비를 위한 조직위 자체 TF도 구성·운영하면서 입출국, 수송, 숙박, 등록, 의전 등 분야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 개막일까지의 주요 일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내일 8월 21일에는 종목별 조 추첨 행사가 있습니다. 아울러 8월 26일에는 선수촌 보도진 공개 행사, 9월 16일에는 메인미디어센터 및 국제방송센터 개관식, 9월 17일은 인천 한류관광 콘서트, 9월 19일부터 20일에는 OCA 집행위원회와 OCA 총회가 각각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판매 촉진을 위해 할인혜택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적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기관람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국회, 정부부처, 지자체 등 산하기관의 아시안게임 입장권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각별히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9월 19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권경상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김윤석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2015년 광주U대회조직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김윤석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직위원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U대회 개막이 오늘로 317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U대회조직위원회는 어제부터 8월 30일까지 12일 동안 유엔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및 분쟁국 청년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매개로 한 개발과 평화,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평화, IT, 문화, 스포츠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멘토로 선정하여 국내외 대학생들 멘티들과 함께하는 국제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EPICS FORUM이 8월 27일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광주U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유엔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국제 프로젝트의 성공 개최를 통해서 세계의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U대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국회 특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대회 준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대회 목표와 기본 전략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5쪽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남북 체육교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단일팀 구성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회기획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대회 운영·준비를 위해서 마스터플랜부터 행동 매뉴얼까지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계획 및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를 인천아시안게임에 지원요원으로 참여시켜 실전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며 이후 테스트 이벤트, 종합 리허설을 통해서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대회 개최에 사용되는 경기·훈련장은 총 70개 시설입니다. 이 중 신축 경기장은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양궁장, 세 곳으로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기존 67개 경기장의 개보수 공사를 통해서 시험 운영과 대회 개최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0쪽에 표시된 종목별 경기가 개최될 경기장의 위치도와 지역별 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선수촌 건립 분야입니다.

약 8000억이 소요되는 선수촌 조성은 기존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전액 민자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3726세대 중 2508세대를 활용해서 일반 선수와 국제심판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64%이며 편의점 등 선수촌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최첨단 IT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조직위에서는 대회운영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대회운영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시스템 개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에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서 운영에 차질이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목별 경기실황을 전 세계로 전파할 주관 방송사를 KBS로 선정하여 지난 4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중계방송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의 광주U대회부터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유럽의 ESPN과 CCTV 그리고 유로스포츠와 계약을 해서 전 세계 180개국에 방송 생중계됩니다.

13쪽, 경기 운영 분야입니다.

경기진행은 경기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같은 종목별 경기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조직위에서는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인력, 물자 등 제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회 12개월 전인 지난 7월 2일, 201개 국가에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대회 1개월 전까지는 참가선수 명단을 작성하여 경기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쪽에 종목별 경기운영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대회지원 분야입니다.

대회 핵심인력인 자원봉사자는 약 6만 명을 중점 교육시켜서 이 중에 3만 6000명을 선발, 최종 1만 3000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만 6000명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현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외국인 자원봉사자는 68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음료 공급 및 숙박 지원입니다.

16쪽입니다.

선수 등 대회참가자들 급식을 위해서 선수·임원 3500석, 국제심판 250석 등 총4000석 규모의 식당을 선수촌 내에 확보할 계획이며 위생관리, 시설방역 등 식음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FISU패밀리, 대회본부 임원 등 1만 8000여 명의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을 위해서 본부호텔 414실, 심판숙소 260세대, 선수촌 2185세대 등을 확보하여 숙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7쪽, 수송 대책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선수·임원 및 심판진 등을 내년 3월에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여 2시간 10분만에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며 선수촌에서 각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선수·임원진 등은 국내 자동차회사로부터 후원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6개의 모터풀과 3800여 명의 수송인력을 확보하여 대회기간 수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의료 및 도핑관리 분야입니다.

만일에 있을 부상 및 질병에 대비하여 경미한 환자는 125개소 현장 의무실에, 일반 환자는 54곳의 선수촌 및 지정병원에서 진료하고 중증·응급환자는 2곳의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3단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도핑 분야는 지난 2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도핑관리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 도핑검사관 80여 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 공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시료검사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분야입니다.

U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개·폐막식은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광주의 문화예술과 정신이 깃든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우선협상 대행업체로 KBS미디어가 선정되어 협상 중에 있으며 대행사 선정이 완료되면 주제 및 콘셉트를 정해서 작품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화 봉송 및 다양한 계기성 문화행사를 통해서 범국민적인 축제 분위기를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마케팅 분야입니다.

지난 1월 SK C&C와 SK텔레콤의 정보통신 부문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자동차, 항공, 스포츠의류, 정장 부문 등에서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후원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본대회 마케팅 권리 보유기관인 국제대한스포츠연맹과 마라톤협상을 통해서 조직위원회가 모든 마케팅 권리를 100%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는 향후에도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해서 재정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대회 홍보 분야입니다.

스포츠·연예인 스타 손연재, Miss A 수지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주요행사를 통해서 광주U대회를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순회 방문, 시민 참여 캠페인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인 국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조직위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유엔과 함께 진행하는 공동프로젝트로 EPICS포럼, YLP 유스리더십프로그

램 등을 추진하여 세계 청소년들을 미래의 체육 지도자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이밖에도 광주대회의 개최 성과를 세계대학스포츠발전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U-Media 영리포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연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내년 U대회 기간 중에는 국제 스포츠학술회의인 2015 FISU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대학 스포츠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연구 발표 및 학술토론을 펼치는 등 국제적 체육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제 대학스포츠연맹 회원국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대륙·국가별 대회참여 준비를 위한 협력지원, 대표단장 회의, 대표단 서비스센터 운영 등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북 체육교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U대회조직위에서는 국제경기대회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에 대회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유엔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국제 대학스포츠연맹 총회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는 등 국제적인 분위기도 성숙되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 간에 합의가 선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조직위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윤석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김남식 차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남북 간의 체육 교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경기대회의 북한팀 참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 확대한다, 그다음에 국제 관례와 대회관련 규정에 따라서 북한팀 참가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면해서는 인천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3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것을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14개 종목 150명의 선수단 참가를 신청하고 공화국정부 성명을 통해서 응원단 파견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최종 엔트리 제출 관련해서 선수 150명 등 총 346명의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 한편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조 추첨, 그다음에 국제학술총회가 있습니다. 이 참가를 위해서 북한대표단이 어젯밤에 인천에 도착을 했고 3박 4일간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남북은 지난 7월 17일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실무 접촉에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지만 북한이 우리 측 회담태도를 문제 삼아서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이후에는 회담접촉 결렬 책임이 우리 쪽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대회에는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엔트리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지난 8월 10일 오는 10월 개최되는 2014년육군5종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직위 측에서는 국제 관례와 대회규정 등에 따라 북한의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북한 측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평창동계올림픽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남북간에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2015년 광주하계U대회와 관련해서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 대회조직위를 중심으로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참가의사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018년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북

한 장웅 IOC 위원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마식령스키장 분산 개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지난해 9월에 남북 분산 개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대회와 관련된 북한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이외에도 지자체 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국제 체육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초 남북중 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친선축구대회 또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고 또 국제여자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화협 측에서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대회를 북한 측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정부는 순수체육 교류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순수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 확대 차원에서 남북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아시안게임 북한팀 참가와 관련해서는 조직위, 인천시 등과 협력하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북간 차기 실무 접촉은 북한 측의 태도 등을 보아가면서 검토할 것입니다.

기타 협의가 진행 중인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 조직위원회 측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남식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남북체육교류 협력 대책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스포츠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남북 상호 간의 이해를 강화할 뿐 아니라 남북 간의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순수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지원 및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남북체육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남북체육 교류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경기대회 남북체육 교류 협력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지금부터 남북체육 교류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 이전의 남북체육 교류는 실질적인 체육교류보다는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하는 남북체육회담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된 바 있고 탁구와 축구 등 개별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차원의 체육 교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였고 2004아테네올림픽에서는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등 민간 차원의 체육 교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발생 이후에는 체육 교류활동을 포함한 모든 남북교류가 위축되었습니다.

최근의 교류현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축구대회에 북한 축구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역시 지난해 광주에서 개최된 유스리더스프로그램에 북한 청소년 3명이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개최된 2013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 우리 선수단 41명이 북한의 초청으로 참가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및 지원사항은 정부

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총 2조 376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600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체육 교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스포츠 교류가 남북 간 화해와 긴장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북한 참가에 대한 지원 및 준비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주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대응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인천시와 조직위는 자체 TF를 운영하면서 남북체육 교류를 준비해 왔으며 북한은 지난 5월 23일 참가방침에 대한 방송 보도를 통해 최초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축구·수영 등 14개 종목 남자 70명, 여자 80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은 지난 7월 7일 실무 접촉을 통해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기본방침 및 실무사항을 논의하였으나 북한은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회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문체부는 조직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북한 참가에 대비한 현장 운영매뉴얼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의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총 7376억 원의 총사업비 중 216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체육 교류현황 및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북한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조직위원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가 결정될 경우 신속히 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남북체육 교류 추진경과입니다.

조직위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유엔스포츠평화개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청년 멘토링프로그램인 EPICS 프로그램, 분쟁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인 유스리더스프로그램 등 각종 체육 교류사업을 통해서 공동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에 개최된 광주 유스리더스프로그램에 북한 청소년 3명 및 지도자 1명을 포함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청소년 33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회 주관기관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지난 2013년 7월 총회를 통해서 이미 남북단일팀 구성 원칙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광주시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체부는 북한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를 표명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남북 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체육 교류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내년에 개최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 남북 간 화합과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종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윤호중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윤호중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은 특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남북체육 교류의 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북한선수단 참여를 위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참여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외통위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의 입장은 이것이 5·24조치와는 별개의 민간 교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국제경기대회와 5·24조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 7월 달인가요? 7월 달에 남북간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 실무 접촉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7월 17일 날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실무 접촉에서, 그야말로 실무 접촉이기 때문에 북한선수단·응원단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주로 북한 측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후에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저희가 좀 북측한테 문의하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 측이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물론 실무적인 문제들을 질문한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측 태도를 좀 문제 삼고 일방적으로 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호중 위원 그 뒤에 실무 접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호중 위원 대회 개최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제로 숙소 문제라든가 교통편 문제라든가 또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어느 경기에 어떻게 응원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선상이나 또는 문서로도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대로 이렇게 가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한테 여쭤 봐야 될까요? 실무 접촉에 참석을 하셨었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제가 수석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대표로 참석을 하셨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윤호중 위원 우리 쪽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고 또 문서로 접수가 됐고 또 OCA에서 참석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닙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OCA에서도 참석을 확인했고요, 또 북측에서도 명단 엔트리를 8월 15일 이전에 규정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그 후속 협의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실무적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선수단·임원진에 대해서는 국제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저희가 선수촌의 배정이라든가 항공편의 확보 이런 것은 같이 협조해서 하게 됩니다.

○윤호중 위원 응원단에 대해서는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응원단은 사실상 조직위 측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윤호중 위원 응원단은 그러면 문광부에서 관장을 합니까, 통일부에서 관장을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응원단이 오게 되면 남한 방문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관장을 하고요, 숙소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배편으로 와서 여객선을 숙소로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배편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숙소는 배편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1차

접촉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게 되면, 배편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입·출국절차를 매일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배가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수단이 넘어오는 건 다른 문제고요.

○윤호중 위원 어떻든 그 배는 북한의 영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제가 알기로는 부산아시안게임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편에서 숙식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어떻든 온다는 이야기만 지금 전달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단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접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응원단이 온다든지 그러면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실무 접촉을 열든지 어떤 방식이 되든지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윤호중 위원 응원단이 올 경우에 응원을 비롯해서 제반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부처, 옆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광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주로, 응원단은 인천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인천시하고 같이……

○윤호중 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준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조직위원회에서도 응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동응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공동응원 문제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응원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거기도 약간 정도에 따라서 많은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측과 협의 또 북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공동응원이라는 게 별도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응원하고 이런 것일 텐데요, '공동응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공동응원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팀과 외국 팀이 경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응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응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윤호중 위원 그런데 왜 실무 접촉 시에는 우리 쪽에서 공동응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가 됐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공동응원까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갖고 응원을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이 합해서 응원하느냐 이런 문제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응원하고 이런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남북 간에 인천아시안게임에 같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또 함께 한민족이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응원단 왔으니까 편의 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말이지요, 분단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보다 더 남과 북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태들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고 우려가 앞서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공동응원과 이런 문제들이 남북관계 진전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정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 확인해 드릴 사항은 지난 실무 접촉에서 공동응원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실무 접촉 때 반대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주선 윤호중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시간을 또 이용하십시오.

박대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에 먼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관련해서 예컨대 가변좌석 문제라든지 컨틴전시 플랜이라든지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하나하나 짚어서 제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지금 주경기장의 특히 가변좌석 문제는 인천시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일단은 믿고 오늘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실무회담이 결렬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경기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위원회에서?

북한팀이 와 가지고 준비해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선수단의 경우에는 8월 15일 날까지 명단 엔트리만 들어오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조추첨 행사가 있게 되는데 조추첨도 원만히 이루어지면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숙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9월 달 들어가도 별문제는 없다, 준비하는 데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지금 선수단 명단과 임원 명단들은 다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좋습니다.

문체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를 지금 문광부로도 하고 문체부라고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문체부라고……

○박대동 위원 문체부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문체부차관님, 작금의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협력을 죽 이렇게 보면 좀 전략적인 접근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것 실제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다가, ‘go-stop’이라고 합니까? 하다가 끊기고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모든 것이 원점에서 시작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시고 남북 어떤 물꼬를 트는 데, 문화 쪽 행사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걸로 해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것이 저희 체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통일부와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 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박대동 위원 방금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교황께서 다녀가시면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진정한 평화, 그다음에 화해와 용서, 이런 것을 바닥에 깔고 한민족의 통일의 희망을 말씀하시고 가셨고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제시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해 가실 분들이 우리 통일부인데 인천아시안게임 이게 거기에 한 큰 시금석이 될 수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윤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이게 있었습니다마는 실무 협력이 현재 결렬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 물꼬를 터 가야 되는데 다행히 선발대가 와서 조추첨까지는 하고 가서 가능성은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와서 체류하고 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정되기로?

○통일부차관 김남식 정확히 계산상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과거에 부산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협력기금으로 한 13억 원 정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러면 대충 한 10억에서 20억 원 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금액은 그 정도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응원단이 숙식을 배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대동 위원 현재 북한 측의 입장은 그것을 전액 다 남쪽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실무 접촉 때 그런 얘기까지 오가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그쪽은 실무 접촉 끝나고 한 얘기가 비용 문제는 자기들이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꾸 오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비용을 다 대겠다, 어느 정도까지 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러면 북한 쪽의 입장을 듣고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측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줄 용의는 있다, 그것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물론 크게 보면 국제관례, 대회규정 이런 것이 제일 원칙적으로는 중심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 대규모 인원이 남측에 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비용 문제 얘기도 안 했는데 남측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지금 그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실무 접촉이나 남북 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우리가 남북 간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가고 또 민족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상대가 있는 만큼 상대방의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생각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틀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형이 아우한테 베푸는 그런 입장에서 봐서 원칙은 지키고 큰 틀은 흩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북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광주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아까 남북단일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좀 해서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네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경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위원입니

다.

제가 윤호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총장님께서는 응원단 소관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통일부에서는 관계부처에서 담당, 예산 문제를 하실 것이다 하고 약간은 떠넘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문체부차관님께서는 응원단은 인천시 소관이다…… 그러면 도대체 응원단 소관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저희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원칙적으로 선수단과 임원단을 관리해서 경기를 잘 조직해서 운영하는 기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상 관객의 문제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

○임수경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 들으셨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임수경 위원 지금 현재 담당으로 나와 계신, 국무위원을 대리해서 나와 주신 차관님들께서 통일부와 문체부에서는 소관이 아니시고 인천시, 결국은 인천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다시 넘어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 중의 하나는 북한의 응원단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남한 방문입니다.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이거든요. 그 부분을 승인……

○임수경 위원 예, 출입경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하실 것이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승인하고 안 하고는 통일부장관의 소관사항입니다.

○임수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원단이 체류하면서 역대 전례로 봐서는 300명 규모의 대규모, 세 차례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및 지원, 사실은 통일부에서 그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협력기금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지금 그다지 바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요, 통일부에서 입장이 뭔가 통일부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내세우기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인천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특위도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문체부도 제기를 해 주시고 인천시 차원,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조직위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응원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또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제경기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필요성, 그다음에 예산 문제 구체적으로 대안 마련, 이런 것을 추동을 해 주셔야 통일부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통일부 주도로 이렇게 저렇게 딱딱 컨트롤타워가 돼서, 우리 이번 올해 2014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컨트롤타워인데요. 사실은 명확하게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의 현재적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님께서 경기대회 전체 운영,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응원단이 온다라는 것은 별도의, 지금도 예측이 가능한,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지요.

원론적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북측 대표단, 참가는 확신하시는 거지요, 현재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명단이 다 제출이 됐습니다.

○임수경 위원 넘어왔지요? 그러면 응원단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셔야 되는데 다른 부처에 넘기시면 안 되고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지난번에 저희가 실무 접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응원단도 관람객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

○임수경 위원 일반 관람객이 아니고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 간의 전시작전에 대해서 첨예하게, 그리고 과거에 대규모 응원단이 나왔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렇게 대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응원단 규모, 숙소 문제 조속히 실무접촉 제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안전문제 관련 내용 봤어요. 그런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응원단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은 전혀 없으세요. 이 부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13쪽에 남북관계 특수성 감안해서 정부 방침 우선 준수원칙을 내세우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말로는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세요. 그래서 별도의 지침을 주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과연 남북이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겠느냐는 의지와 노력이 어느 만큼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천아시안게임은 도대체 어느 만큼의 의지와 노력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는 얼마만큼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내고 통일부는 또 거기에 맞는 서포트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실무접촉 재개를 먼저 제의할 계획이 없다, 이것 통일부차관님께서 체크하고 계시지요? 통일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렬선언하고 회의장을 북한이 먼저 나가서 우리 측이 먼저 제의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투명한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비선 활용에 부정적이다', 이 관계자 혹시 차관님이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저는 아닌데요.

○임수경 위원 대변인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수경 위원 그러니까 일체의 공식·비공식 접촉은 하지 않겠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건 아니고요.

○임수경 위원 그건 아니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임수경 위원 비선 활용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다시 먼저 제의하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북측이 먼저 협상하지 않는 한 일체의 공식·비공식 접촉은 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약간 차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아시안게임 북한팀 참석과 관련된 실무접촉을 먼저 제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 입장 맞고요.

그다음에 비선 그 문제는 좀 큰 원론적인 차원에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임수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도 돌던데요.

사무총장님, 통일부는 지금 이런 입장이세요. 그래서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의 대표단이 참가를 한다면 응원단도 참가를 한다는 전제로 통일부의 실무접촉 재개를 촉구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및 지원 방안 문제를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시고요. 문체부에도 이 부분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촉구하시라고요. 협의하지 마시고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인천아시안게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입장권 판매 대책 문제 및 다른……

아,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요. 문체부차관님, 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감동받았어요. 남북체육회담 현황하고 연도별로 남북체육교류 현황이 통일부보다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다만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2011년으로 끝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3년도에 이미 체육교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즉 문체부에 더 이상 남북체육교류를 담당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당자가 없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수경 위원 민간 차원도 여기 다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리고 제가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시, 그러니까 조직위 말고요. 인천시청에 남북협력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응원단이 만약에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임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윤 위원 오병윤 위원입니다.

하계U대회사무총장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오병윤 위원 지난 7월 1일부로 지자체장이 바뀌었는데 혹시 전임 시장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 후임 시장이 오셔 가지고 사업에 무슨 변경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전혀 없습니다.

○오병윤 위원 전혀 없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오병윤 위원 그러면 남북단일팀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전임 시장이 하셨어요. 전임 시장이 하셨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전임 시장이 하신 게 아니고요.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는 2009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한 국제연맹에 제출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이미 2009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병윤 위원 이 문제도 후임 시장도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면 됩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없습니다.

○오병윤 위원 그러면 우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정부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내년 7월인데 단순히 응원단 참가, 선수단 참가하고 달리 단일팀 문제는 시간을 더 요할 텐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 차원이 아니고 유엔의 공식기구로서 유엔 스포츠평화개발국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은 일단 인천아시안게임이 완료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아, 정부하고는 추후에 하겠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오병윤 위원 그런데 금방도 계속 질의가 있었지만, 다 아시겠지만 상식에 관한 문제로 남북 간의 교류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오병윤 위원 단순히 스포츠교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방도 얘기했듯이 통일부·문체부,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매우 정책적으로 청와대도 관계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기관이 관계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단순히 실무 차원에서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저희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남북 간에 합의가 되었을 때 이 게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선수단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요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건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병윤 위원 사무총장님은 그런 판단을 전혀 안 갖고 계십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실무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아니, 사무총장님은 시장을 대행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아닙니다. 조직위원장을 대신……

○오병윤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이 시장이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병윤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은 당연히 사무총장이 하셔야지 정무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 실무적인 행정적인 준비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

무총장 김윤석 그건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건의가 아니라 사무총장님이 계획을, 정무적 판단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물론……

○오병윤 위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스포츠교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로 지금,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5·24조치로 묶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남북 관계 어려움을, 예전에 고전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단초를 만들어 갔던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인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광주는 더 노력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이 자리가 국제경기특위니까 위원님께서 정무적 이유로 추진해 주시면 저희는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알겠고요. 또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최하는 주최 당사자들도 그런 정무적 판단과 의욕을 강하게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덧붙여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U대회가 사실은 대학생 친선경기대회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친선경기라기보다도……

○오병윤 위원 원래 뜻은 대학생들의 친선경기대회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친선이라고 말하면 메달이 없어야 되고, 이것도 올림픽과 똑같이 메달이 있고 기록이 다 체크가 되고 그렇거든요.

○오병윤 위원 그렇긴 하지만 대학생들의 친선에 주목적이 있는 대회가 U대회 아닙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오병윤 위원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물론 지금 인천도 아시아경기대회를 추진해 놓고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허덕허덕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광주는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마케팅 분야도 적자 없이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추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그런 점에서 시민의 참여, 특히 시민의 참여라는 점에서…… 올림픽이라는 게 선수들 대회라기보다도 메달도 있고 경쟁도 하지만 대학생들의 친선경기라고 하는 점에서 시민들의 참여,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그 학부모들의 참여, 이런 면들을 조직하는 문제도…… 제가 보기엔 사실은 지역에 막 선수촌 짓고 그러는데 원래 U대회 순수한 뜻이라면 홈스테이 방식으로 해서 대학생들하고 교류전을 국제적으로 하는 대회다라고 하는 성격을 더 높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원래 목적은 시민의 참여, 광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올해 들어서 이 광주란 도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요.

○오병윤 위원 그래서 정부 지원도 있어야 되고 시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앞으로 모든 국제경기대회들이 가능하면 폭넓은 다양한 참여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재정 투입하고…… 그건 예전에 도로도 없고 다리도 안 놔지고, 예전 시대의 얘기지 지금은 무슨 경기대회 유치해 가지고 도시 단장하고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그런 점에서 특히 U대회가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이라도, 이제 1년 좀 못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민참여 그다음에 특히 남북 교류협력 관련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광범하게 참여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라고 하는, 민간교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교류협력

에 대한 모델도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가 아시다시피 문화도시고 또 학생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에 광주지역에 U대회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확장이 됩니다.

첫째는 고속철도 호남선이 5년 만에 광주에 개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에, 8000억 소요된 것이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도 이런 소셜 인프라를 이용해서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과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병윤 위원 마지막으로 마케팅과 관련돼서 민간기업 후원 확대하고 이런 계획들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잘하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구체적 금액……

○오병윤 위원 목표치의 몇 % 정도 됐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목표치의 한 2배 했습니다. 2배 했고……

○오병윤 위원 2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한 400억 목표했는데 한 980억 정도 했습니다.

○오병윤 위원 980억, 자료 있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제가 따로 준비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후원 기업과 계약 상태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오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성 위원 내년도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문체부차관님 또 통일부차관님, 두 분 사무총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창동계 및 국제경기 특위 중에서 남북체육교류 관계로 이렇게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사무총장님이 주관이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이한성 위원 오늘로서 D-30입니까, 29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30일입니다.

○이한성 위원 D-30이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이한성 위원 8월 31일까지 있으니까. 어쨌든지 한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전의 계획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비 상황을 보니까 지난번 때 한번 불거진 문제에 대한 대비가 좀, 보고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때 경기장 가설 관람석 부분이 가드레일, 손잡이 부분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걸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있고 그것이 또 너무 약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흔들면 흔들흔들할 정도로 굉장히 허약한 그런 가설 관람석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관람객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흥분한 관중이 확 쏠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흥분된 그런 상황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잡이 부분이 중간에 끊겼던 부분도 있고 대단히 약한 재질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보강보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인천시에서 건설을 한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인수해서 여러 가지 문화 식전행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경기장은 아시안게임 육상대회로 쓰고 또 개·폐막식 경기장으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가변석에 대한 보수는 지금 인천시랑 해서 다 마련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시에서 안 나오고 지금 사무총장님이 조직위원회에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안전대책은 대테러대책, 경기장 안전대책 다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한 보강 여부를 좀 보고를 해야지 왜 빠져 있어요. 그대로 가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설이 서구 시설에 비하면 아주 연약하고 재료를 아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대단히 불안해요. 교량을 가 보면 유치원의 울타리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외국 같은 데 가면 교량이라든지, 그 교량의 테두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투박한가. 그렇게 어차피 가설 부분이라 하더라도 가설했다가 다시 해체해서 또 재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재라도, 철강재?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연약하게 해 가지고 이거 혹시 힘센 사람, 체격 좋은 사람 밀면 그냥 휘고 부러지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요.

2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거는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그것 외에 뭐 수영장도 있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거 전부 다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지적된 안전시설에 대해선 저희가 보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리 자료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하는데 하여튼 2차관님 그것 좀 책임을 지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남북체육교류 문제인데 이제까지 추진 경과를 쭉 보고서에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고 엊그제 13일 날 북한 선수단 명단 엔트리가 이렇게 넘어왔네요.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를 성사, 다 돼 가는 거 아닌가, 아직도 모르겠지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 조직위원회라든지 또 문체부라든지 또 뒤에서 막후 협조를 많이 해 주신 통일부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광복절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북한 측의 화답도 좀 기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북한 선수단이 실제로 와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오랫동안 경직되었던 남북 관계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모든 국민이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북한 선수단 지원 규모가 50명 선에서 그냥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OCA와 협의를 해서 지금 아시아 각국의 45개국 회원국에는 30명에서 50명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 그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그래서 북측에 50명 지원하는 건,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한성 위원 거기까지 원칙이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원칙입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임수경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관계는 통상 다른 외국 초청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교류협력기금, 무상협력기금도 좀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차관기금 말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이한성 위원 그런 것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한성 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경제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 광주는 많이 해 놨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운영을 하겠다…… 사실 북한 선수가 와서 분위기 살면 국내 수요도 좀, 소비 진작도 될 것이고 아마 마케팅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북한 선수단 내지 응원단 지원한 규모 이상의 홍보효과, 흥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길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이게 어디서 얘기해야 됩니까?

통일부차관님이 좀 얘기하셔야 되겠네.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아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디까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한성 위원 그래서 기준을 좀…… 다른 또 협력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트면 또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년 10월 2일부터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거기에 북한군이 오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데 혹시 여기서 얘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까 그 보고서에 2014년도 육군 5종 경기대회 그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참가하겠다……

○이한성 위원 5종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라는 얘기 정도는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약간의 그 기미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이 잘되면 아마 그것이 큰 밑천이 되지 않을까, 또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대회이고 또 사실 체육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있는 대회인데도 이게 워낙 우리나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올림픽, 월드컵 또 동계올림픽 하도 큰 걸 많이 유치하는 바람에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명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정말 과연 내년에 북한군이 온다면 이것은 대단한 흥행이고 아마 세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대박, 잭팟이 터뜨려질 수 있으니까 통일부에서 막후의 역할을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걸로 마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광주 서구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김윤석 사무총장께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켜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동의하시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박혜자 위원 실제 하계대회 지원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오늘 보고하신 대로 FISU하고 함께 남북단일팀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회유치신청서 당시에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하셨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때 제안하실 때 문체부의 동의 받았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다 돼 있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통일부도 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통일부는 아니고요. 문체부는 영문 비딩(bidding)으로만 할 때는 문체부가 승인을 하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문체부 승인은 대회 유치를 승인할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것만 승인하는 것이고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콘텐츠에 대해서는,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박혜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문체부의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그 5쪽에 보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체육교류' 해서, 사실 향후 계획에 보면 '북한 측의 광주U대회 참가 의사표명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남북체육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문체부는 남북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에 통일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향후 추진방안에서 '순수 체육교류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라는 기본입장을 유지한다'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다들 남북 간의 체육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순수 체육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박혜자 위원 순수 체육교류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U대회조직위가 어떻게 보면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추진위까지 구성을 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제가 우리 문체부차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간에 어떤 노력을, 지원을 해 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거기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어……

○박혜자 위원 제안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요청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제가 김윤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께 묻지요.

지난 3월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공문이 왔었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무슨 공문 말씀이십니까?

○박혜자 위원 광주U대회조직위에 보낸 공문에서 'FISU는 남북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광주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대회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공문 왔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왔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서 '광주U대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역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제안했었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있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역도대회 북한 개최 문제는 2013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역도연맹에서 '광주U대회에 역도 종목을 하나 추가하자. 그리고 그것을 광주에서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역도 종목이 평양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도연맹이 '광주에서 하나를 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박혜자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광주조직위에서 그 공문을 문체부에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문체부에 이러한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냈습니다.

○박혜자 위원 보냈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박혜자 위원 문체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공문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공문 받았습니다.

○박혜자 위원 공문 받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공문 받고 즉시 제가 그다음 날 광주에 내려가서 FISU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마침 그때 FISU 총회, FISU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총장에게 확인한 결과 '향후 FISU에서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FISU에서 정식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에 관련된 공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직접 녹취……

○박혜자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FISU하고 의논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공문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사무총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녹취한 내용도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녹취한 내용도 저희한테 주시고요. 사본을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공문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글쎄, 그것……

○박혜자 위원 제가 틀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제안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에 'FISU 집행위원회 이런 데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광주조직위하고 의논한 뒤에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FISU가……

○박혜자 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광주조직위에 모든 것을 미뤘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닙니다. 'FISU하고 광주조직위하고 협의한 이후에 정부하고 협의하겠다'고 FISU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자, 그러면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주조직위에서 결정을 하면 문체부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를 해 줘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승인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FISU하고 광주조직위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박혜자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돼서 그 공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내려가서 만나서 그냥 이야기한 걸로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니요. 그 공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혜자 위원 그랬더니, 사실 확인을 했더니 사실이 틀렸어요? 그러면 FISU가 공문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자기네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추후에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것이지 저희가 남북체육교류를 주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박혜자 위원 저는 공식적인 이런 공문이 왔다면 그 공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FISU에다 하는 것이 중요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아까 통일부차관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문체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교류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1분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닙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이 답변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표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제가 직접 가서 만난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문체부에서는 모든 책임을 광주조직위로만 미루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FISU에다가 직접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박혜자 위원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가 공문으로 보다 그 자리에 직접 내려가 가지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제가…… 아무튼 녹취록 보내주

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석 사무총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입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제가 잠깐만……

○박혜자 위원 광주시에서 그 책임을…… 자, 문체부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아니, 그 공문을 보시면 이것을 보낸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광주조직위원회 그리고 우리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여기도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반응 안 했고 우리 조직위도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FISU에서 보낸 공문이 그때 FISU 전체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FISU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혜자 위원 개인적인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이것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래서 저희는 FISU의 공식적인 의결절차를, 집행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밟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사무총장 1인의 이름으로 한 서신 그걸 가지고 정부나 국제역도연맹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반응을 안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사무총장이 그렇게 했으면 그다음 절차를 밟아서, 의지만 있다면 총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다음 후속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현재 남북단일팀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데 한 종목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단일팀 조성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지겠다, 또 효과도 분산되겠다 싶어서 역도 종목을 분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역도 종목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전체 종목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분산 개최이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것은 단일팀인데 단일팀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평양 가서 한 종목 더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박혜자 위원 아니, 그걸 계기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것은 논의의 포인트와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박혜자 위원 차후에 더 검토하시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위원장 박주선 우리 박혜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태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FISU 사무총장이 보낸 3월 16일자 공문에 보면 그 공문 내용에 금년 5월경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한국 정부 그리고 이 U대회 조직위원회 그리고 한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대학스포츠연맹……

○위원장 박주선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의 승인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3월 말까지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총장 말씀대로 하게 되면 공문하고 그다음에 FISU 사무총장이 와서 한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였다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과연…… FISU 사무총장이 언제 왔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3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3월 언제 왔어요? 공문 보낸

다음에 왔습니까, 공문 보내기 전에 왔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공문 보내기 전에 FISU 포럼 때 광주에서 있으면서 현장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공문 보내기 전에 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공문 내용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나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나 또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잖아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저는 FISU의 공식적인 의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공문 내용에 보면 3월 말까지 아까 그 세 기관의 의견을 달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낸 수신처에 보면 FISU 사무총장이……

○위원장 박주선 아니, 세계대학스포츠연맹 사무총장이 할 일 없어서 장난으로 그런 공문을 보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제가 알기로는……

○박혜자 위원 제가 공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북한 방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러면…… 김종 차관님, 저한테 잘못 말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 녹취록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녹취록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문에 대해서 FISU 사무총장을 만나서 답변을 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아까 FISU 사무총장은 이 공문 전에 방문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후가 틀리지 않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FISU 사무총장이 광주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요, 그 공문이 그 기간 중에 왔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걸 저한테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세요, 전 일정이며 만난 일자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혜자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김남식 차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남북응원단 문제 때문에 실무협상이 있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윤관석 위원 7월 17일인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7월 17일 날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때 왜 구체적 진행이 안 됐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윤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18일 날 외통위가 있었습니다. 외통위에 장관 나와 답변했어요. 그때 외통위 위원들의 질의가, '인공기 크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윤관석 위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도 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러니까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는 북한 측이 주로 자기가 이번에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후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아, 이것은 어떤 거냐,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남측 태도를, 하여간 문제 삼고 결렬을 선언하고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것은 경과고, 그 원인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통위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안도 그 당시 실무적이니까 당연

히 지적이 있었을 거고 의견교환이 있었겠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었지요. 우리가 확인을 좀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윤관석 위원 자, 그러면 추가로도 실무회담을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지금 날짜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윤관석 위원 'D-30일'이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언제 이 실무회담을 해서 결정을 해서, 또 실제 파견 나오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게 될 텐데……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까 조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수단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렇게……

○윤관석 위원 아니, 선수단 말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응원단과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협의가 필요하다까지 딱 잘라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윤관석 위원 부산에서 열렸을 때 언제 협의가 끝났었습니까, 응원단 협의가?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때 한 달 전 정도 끝난……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제 지적이 지금.

그리고 통일관계전문가 117명, 이것도 외통위에서 나왔던 질의입니다, 물어보니까 아시안게임이 남북 간의 관계·협력 개선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윤관석 위원 그리고 권경상 총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인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대통령 모시고 VIP 보고회가 있었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인천시 주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주경기장에서 했고, 저도 가 봤었는데 그때 그 보고회 보면 일반적인 준비사항은 되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좀 빠른 참가라든지 또는 응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는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 지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왜 그랬지요? 조직위원장도 보고하시고 시장도 보고를 했었는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남북관계 재정 지원 문제는……

○윤관석 위원 누가 그렇게 그것은 보고사항에서 빼라고 그랬나요, 중앙정부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그것은 아닙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나올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앉아 있었는데, 자료도 보고 다 봤는데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중요한 사항들이. 협조 요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치르는 데 있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일반적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각국 NOC는 자국의 경비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에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요, 응원단은 그렇다 치고, 또 아시안게임 자체를 준비하는 데 조직위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도 있었을 텐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조직위 측에서는 각국 NOC에 대한 선수촌의 숙소 문제……

○윤관석 위원 주로 안전 문제만 그날 보고가 되더라고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안전 문제 이런 것은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때 건의사항에 들어갔던 문제는 입장권 판매 문제가 중심이 돼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물어보면 9월 19일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보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개막식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개막식 준비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사실 대회 시작은 개막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많이 애써서 준비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남북 선수단 또 응원단 이런 부분들이 역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응원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응원단은 인천시가 준비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천시는 북한의 실무협상 무산 이후에 이 응원단 관련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시민단체들은 이미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을 했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총장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윤관석 위원 7월 23일부터 이미 시민단체들이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8월 6일부터 이 공동응원단을 모집하고 있고 또 자비로 후원금과 복장, 티켓들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직접 관장하는 시민 응원단은 아니고, 또 그리고 서포트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대회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적극성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에서 남북, 협력관실 중심으로 지금 응원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또 시민단체……

○윤관석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인천시를 통해서 확인을…… 제가 확인한 것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에서 누구 나오셨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인천시 관계자가 좀 말씀을……

○윤관석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인천시의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관련해서는요,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남북응원단 관련해서는 사실 정책기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앙정부에 이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남북 화해의 그런 좋은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린 바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남북……

○윤관석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실제 진행하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응원단 관련해서.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진행은 현재 확정된……

○윤관석 위원 확정된 게 뭐예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없고요.

○윤관석 위원 없지요?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한 것 있어요? 없지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요청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공동응원단 관련 예산 3900만 원 있지요, 인천시에?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예,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왜 집행 안 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관석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침 안 주고 있어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중앙……

○윤관석 위원 적절치 않으니까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 내려왔지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지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예.

○윤관석 위원 김종 2차관님, 그런 지침 왜 내렸어요, 중앙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는 그런 지침 내린 적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답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천시 관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인천시한테 저희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인천시는 어디서 지침 받은 거예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좀 실무협의상에서……

○윤관석 위원 통일부에서 받았어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아닙니다.

○윤관석 위원 그럼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그 3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협력관실 소관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진행

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치행정과와 실무적으로 조율이 된 상황이라고 제가 파악을……

○윤관석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협력관께서 지침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는 안 했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의적으로 3900만 원 공동응원단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그것을 집행 안 하고 지금 시민응원단이 자비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행정의 무책임한 게 발생을 한 거지요? 이 중요성을 많이들 얘기하면서……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

○윤관석 위원 협력관께서 못 하시면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윤관석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것 제가 듣기로는 응원단 문제가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다고 지금 전혀 인천시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혀 쓰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방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종 차관께서 확인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홍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누구나 다 이 아시안게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제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상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인천시 따로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리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시간인데,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임수경 위원님, 5분 정도 하시지요.

○임수경 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문체부차관님의 역할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관께서는 혹시 지금 그동안에 문체부장관 부재중에, 어제 인사청문회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혹시 인천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특히 남북체육교류 현황에 대한 이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 장관님한테 말씀……

○임수경 위원 예, 장관 내정자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임수경 위원 하신 적이 있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오늘 이 회의에 대해서도 아침에 또……

○임수경 위원 그러면 오늘 특위 관련해서도 또 장관 내정자 만나실 텐데 각 위원님들의…… 특히 문체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통일부는 물론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 또 우리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를 구체적 지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천아시안게임에 총괄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정말 그야말로 대회의 흐름과 운영을 위한 것이고요. 교황께서도 왔다 가시면서 한반도에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으면, 여기에 문체부가 사실은 좀 다소 기대에 못 미쳐서 제가 조금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 자료, 업무보고에서도 '북한 참가 대비 현장운영 매뉴얼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뭐 물론 한 줄로 정리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렇게 딱 한 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경찰이나 기타 관계기관에서 할 테고, 문체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시급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남북대화를 좀 촉구하시고, 스포츠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그간에 남북교류협력이 막 활발하던 때와는 정말 다른 아주 동토의, 이런 차원에서 정부 주무부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다양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고 북한은 획일적인 당의 어떤 간섭을 받는 사회인데, 그간의 남북체육교류 회담 관련해서의 교훈도 좀 받으시고요.

특히 우리가 북측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언론이나 기타 다른 이쪽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통일구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를 분명히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다른 사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화의 창을 열겠다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표, 특히 교황님의 어떤 평화의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통일부가 움직일 일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임수경 위원 그러면 좀 세부계획을, 얼마 안 남았지만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좀 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입장권 판매대책이…… 지금 350억의 판매현황이, 40억이 지금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310억 판매 가능합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팔려고 그럽니다.

○임수경 위원 그리고 특히 이 350억 중에서 개·폐회식이 250억이고 일반 경기가 100억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 위주의 대회가 아니라 개·폐회식의 보여주기 행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위원회인지 질의드립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경기는 많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한 거고요. 다만 개·폐막식은 개·폐막식 공연 행사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비싸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쪽의 수입이 높은 겁니다.

○임수경 위원 가격 차이가 있으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요청 사항에 국회나 정부부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하기관, 지자체에 입장권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데 요청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요청도 하고 지금 각 기관별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그렇게 그냥 알아서 사라고 하면 되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나머지 310억 완판 가능한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완판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단계별·시기별 대책이 마련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임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막 한 달을 앞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7월에 개최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준비상황, 안전대책 및 북한팀 참가 등 남북한 체육교류 진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두 국제경기대회가 원만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에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권경상 사무총장 또 김윤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드립니다.

특히 남북한 체육교류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에 중단된 남북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과 응원단 참가에 따른 안전대책 및 비용 문제 해결, 통일부의 전향적 입장을 전제로 문체부 및 대회 조직위 등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적과 조언이 있었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대회 조직위와 통일부 등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 북한팀 지원 등 대회 운영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유도, 역도 종목의 북한 개최

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 등 의미 있는 지적과 방향 제시 등이 있었습니다.

문체부·통일부 등 정부 관련 부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및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는 앞으로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고, 특히 남북한 체육교류 강화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하는 등 성공적인 국제경기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이 특위는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기타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주선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혜자 위원이 요구한 문체부차관과 FISU 측과의 녹취록 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 모두에게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김종 차관님, 김남식 차관님 그다음에 김윤석·권경상 사무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대동	박주선	박혜자	염동열
오병윤	윤관석	윤호중	이한성
임수경			

○청가 위원(3인)

이에리사	최동익	황영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김한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차관	김남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변주영